

사회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가출 패밀리'

사이트 통해 만나 절도·성매매 등 일삼아

나이·신체 사이즈까지 올려 남자들 유혹

최근 가출 청소년끼리 모여 소식을 해결하는 이른바 '가출패'(가출 패밀리)의 존재가 급증하면서 탈선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성매매 등에 빠져 들고 있지만 그 실태 파악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광주북부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가출청소년 김모(18)양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 등은 지난 7일 새벽 2시에 전주시 삼례읍 한 원룸에서 조모(25)씨 등 2명의 술잔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한 뒤 현금과 시계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뒤 알개 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패는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페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취재진이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출패 구해요'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15세 여, 가출패 구함' 등의 관련 글이 잇따라 검색됐다. 관련 글에서는 자신의 나이, 성별, 연락처, 지역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심지어

어는 신체 사이즈까지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사진>

문제 청소년 대부분은 가출 직후 당장 생활할 곳을 찾다가 가출패에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것이 청소년 단체의 설명이다. 최근 원룸과 고시원이 증가하면서 3~5명이 20~30만원의 돈을 모아 집세를 내면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귀찮아지거나 마땅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성매매, 절도 등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가출 청소년과 함께 혼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성을 팔기도 한다.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진익 상담원은 "보호 시설의 규칙이나 통제마저도 견디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일행구함
가출일행구함 해서 ㅋㅋ 근데 경찰은 다카마 집 국방방곳 다돌아다닐수있으니안영 가출하시거나...
경남가출일행구함
19살남자구 일반주택에살구있습니당2만 화장실아 면하고 집안일해주시더대고있습니당
저렴한나살분
노원 근처사는분 저렴한나여ㅠㅠ가출이여여--- 문:
저렴한나살분
노원 근처사는분 저렴한나여ㅠㅠ가출이여여--- 문:
가출일행구해요 지방곳있어요~ 여자도있어요
가출일행구해요 지방곳있어요~ 여자도있어요 남자: 여요 같이일하면서 연애하면서 날자시키고...
가출패 구해요 혼남일 카톡
일행구해요!! 가출해도 집에서 포기구 이전 집에서: 같이 놀러다니요 ㅎㅎ ㅎㅎ 일행구해요 저...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들어 상담 등은 힘들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앗! 소나기 10일 넘도록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자 행인들이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짬·통·열·차

광주발 용산행 무궁화호 냉방 고장... 승객들 항의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열차의 냉방장치가 고장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0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5분께 송정리역 인근을 지나던 광주발 용산행 무궁화호 1426 열차의 냉방 압축기 4개 중 1개가 고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전체 7량 가운데, 1호실 1량의 냉방장치가

동일 중단됐다. 이 열차는 이날 오후 2시55분 광주에서 출발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사대전역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짬통 속에서 앓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1량의 정원은 72명으로, 이날은 휴일을 맞아 타지역으로 향하던 승객들로 만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사대전역에 도착하자

급히 열차 1량을 추가로 연결, 승객들을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21분간 지연되면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이 열차에 탑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만석의 상황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오인해 탑승하면서 승객들 상당수가 입석으로 종착역까지 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착역인 용산역에는 17분 지연

도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운행을 마치고 안전점검을 끝냈는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냉방 압축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고장을 일으킨 것 같다" 밝혔다. 한편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 탑승 승객들에 대해서는 운임요금의 25%를 보상해 줄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 14% "야동 따라하고 싶었다"

행안부 1만2000여명 조사 "성인물 본 적 있다" 40%

성인물을 본 적없는 청소년이 평소 동영상 장면을 떠올리고, 일부는 실제로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42명(39.5%)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가 발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을 접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충

격을 받았다'(32.2%), '불쾌감이 나 혐오감이 들었다'(31.7%),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24.1%)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성인물을 따라하고 싶었다'는 답도 14.2%에 달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올라갈수록 모방 심리가 강해 고등학교 20.3%가 '따라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성인물 이용 이후 나타난 변화로는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는 답이 16.5%를 차지했으며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답도 5%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인물 접촉이 성폭행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출소 두달도 안돼 또...

20대 절도범 DNA 수사에 잇단 덜미

출소한지 두 달이 채 안 돼 금품을 훔친 20대 절도범이 잇따라 경찰의 유전자(DNA)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30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채모(2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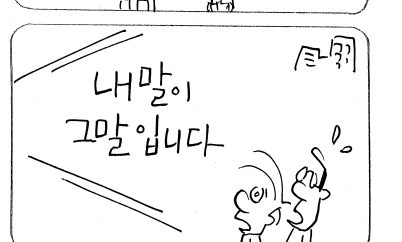
채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송모(여·56)씨의 주택에 침입해 자전거와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지난달 4일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직후부터 대낮에 빈집을 플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

찰은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음료수 캔에서 용의자의 DNA를 검출해 동일수법 전과자인 채씨를 붙잡았다.

또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이모(25)씨는 지난 5월 광주시 서구의 한 세차장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주변상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꽂초 등에서 검출한 DNA가 이씨의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보하고 동일인과의 이씨를 검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620) 김종두



친구와 짜고 PC방 절도

광주 서부경찰은 30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PC방에서 현금을 훔친 정모(19)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군 등은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께 서구 농성동 구모(34)씨의 PC방에서 한 명이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구씨가 자리를 비우자, 다른 한 명이 친구에게 이를 알린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연히 마주친 2년전 성폭행범

○10대 소녀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40대를 2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용의자로 지목, 경찰이 수사에 착수.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18)양이 지난 2010년 7월 친구와 함께 가출 후 만난 J(43)씨가 속박비와 식사비를 내주겠다고 끄덕여 모델로 찾아와 혼자 자고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신고해 오자.

○A양은 지난 28일 광주시 동구 한 주차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중인 J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J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입건할 방침.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CNC수사 서울 중앙지검 이송

"지역인사 수사 완료"

검찰이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선거비용 보전금 편취 등 사건 수사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신유철)은 30일 "장만체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교비 횡령 등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져 조사해 온 CNC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지청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보전금 편취'가 전국적으로 이뤄졌으며, 장만체 전남도교육감 등 지역 인사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만큼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CNC 업체 관계자 등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시로 불러 면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떠링,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월계수타운 상영 내방

● 현대 ● 한국은행 ● 금호대우 ● 롯데캐피탈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몰래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면접후 학습능력 가능자)

자격증반

- ① 교육일정 :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② 교육비 : 150,000원
- ③ 모집인원 :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 사회복지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호사 :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교육 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2년 9월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향료 : 5,000원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북지 소로 36